

● 일본의 양계소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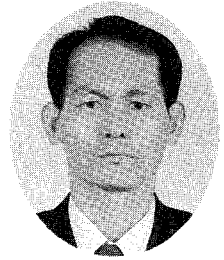


1. 20개 어분제조 공장에서 소 단백질 검출

닭 사료를 포함한 가축용 배합사료에 육골분의 사용이 전면 중지된 일본에서 전국의 어분제조 공장에 대한 농림성(농림부)의 검사결과, 20%의 공장에서 제조된 어분에서 소의 단백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. 어분은 아직까지 소 사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농림성 관계자는 「원료의 생선과 그 부산물 등에 소의 부산물이 들어간 것이 원인이며 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은 없다」고 보고 있다.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소 단백질이 검출된 공장은 재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어분을 사용한 축우용 사료의 제조·출하를 2월 12일부터 일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.

농림성은 작년 12월부터 전국 107개의 어분제조 공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20개소의 공장에서 제조된 어분에서 소만이 갖는 특유의 단백질이 검출되었다.

어분은 수산물 시장 등에서 처리된 생선 부산물을 가공한 분말로 소 단백질이 들어 있는 공장에서는 음식적이나 수산물가공 공장에서 받은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사용하고 있어, 여기에 소고기나 우유제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(기술제휴 I.O사 제공).



윤 병 선
한일사료(주) 기술연구소 부소장
농학박사

2. 2001년 닭고기와 계란 수급상황

재무성(재정경제부) 관세국이 밝힌 2001년 수입누계는 닭고기 52만 3천 173톤으로 2000년 대비 92.1%이었다. 수출국별로 살펴보면 제1위가 중국, 제2위 태국, 제3위 브라질, 제4위 미국으로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99.5%에 달하고 있다.

닭고기 가공품은 18만 4천 965톤으로 2000년 대비 122.7%이며 금액기준으로는 33.6% 대폭 증가하였다. 수출국의 점유율은 제1위 중국, 제2위 태국, 제3위 미국이 전체의 99.5%를 차지하고 있다.

계란은 난각을 포함한 계란의 경우 중국에서의 수출이 2000년 대비 41.9%로 절반이상 감소하였으나, 브라질의 수출량은 616.1%로 대폭 증가하였다. 2001년 수입계란의 합계는 난각을 포함한 계란을 합산하였을 때 12만 988만 톤으로 2000년 대비 101.4%이었다(일본양계협회 자료 인용).

3. 2001년 병아리 입추 실적

한편 2002년 1월 29일에 발표한 2001년도 12월의 전국 병아리 부화수수는 산란계 암병아리가 899만 1천수로 2000년 대비 94.4%(이중 병아리 출하수수는 851만 3천수로 전년대비 94.1%)이고 브로일러가 5천 466만 8천수수로 2000년 대비 101.5%(병아리 출하수수는 345만 3천수로 전년대비 101.5%)였다. 종계의 출하수수는 산란계가 7만 3천수로 2000년 대비 86.9% 브로일러는 52만 3천수로 2000년 대비 92.1%이었다.

2001년도 전 기간 병아리 입추는 산란계가 1억 1천 90만 5천수로 2000년 대비 100.9%이고 브로일러는 6억 720만 7천수로 2000년 대비 100.0%이었다. 산란계의 입추는 후반기부터 둔화되었으나 브로일러는 시장의 강세를 반영하여 후반기부터 증가하여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년을 상회하였다.

향후 3개월 간의 병아리 예상 출하수수는 산란계의 경우 1월 95%, 2월 97%, 3월 95%이고 브로일러는 1월 104%, 2월 105%, 3월 100%로 예상된다(일본양계협회 자료 인용).

※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(031-280-4046)